

##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Urban Housewives' Motivation for Leisure Activity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부교수 : 李 基 榮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Lee, Ki Young*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張 允 億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ng, Yun Hi*

#### 목 차

I. 서론	2. 여가활동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II. 이론적 배경	3. 여가활동 동기와 여가활동 참여
1. 여가활동 동기	4. 여가활동 동기의 차원에 따른 주부의 유형화
2. 관련 변수의 고찰	V. 요약 및 결론
3. 여가활동 동기와 여가 행동	1. 요약
4. 여가활동 동기의 유형화	2. 결론
III. 연구방법 및 절차	3. 제언
1. 연구문제	참고문헌
2. 연구방법	
IV. 결과 및 논의	
1. 여가활동 동기의 차원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dimensions of leisure motivation of urban housewives, to segment those wives according to their leisure motivation type an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Sample of survey are 574 married women under age 60 living in Seoul. Data collected by questionnaire and interview were analyzed through statistical method including factor analysis, ANOVA, Duncan test, MCA and cluster analysis etc.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 1) Urban housewives' motivation for leisure activity is composed of self-developmental, relaxational, social, family-oriented and imitational dimensions.
- 2) Main determinants of wives' leisure motivation are their age, education, job, stage in

family life cycl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household income. Their Sex role personality traits also have effect.

3) The urban housewives' leisure motivation is strongly correlated with their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y.

4) According to the factor scores of each motivation dimensions, subjects can be grouped to 4 types by use of cluster analysis technique. They were named as Leisure-Indifferent type, Little-Leisure-Seekers, Passive-Leisure-Seekers and Active-Leisure-Seekers. Each of these groups showed different features in socio-demographic factors, different personality traits, and different leisure behavior.

For an urban housewife, the most important need for leisure is developing herself. Rest, social life and family are important for leisure, too. Imitation is another reason. Groups with different combination of leisure motivation seem to have different resource and personality.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 for future leisure plan for them.

## I. 서 론

최근에 와서 산업화와 기계화의 진전으로 개인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의료 기술의 진보로 인해 인간의 수명연장이 보편화 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생의 많은 부분을 여가로 보내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여가는 생활의 일부로서 여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어 왔다. 또한 여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여가를 위해 쓸 수 있는 자유재량소득이 증가하여 여가욕구가 증대하는 한편, 생활의 질이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여가생활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여가욕구에의 적절한 대응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후기산업사회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연숙 1989). 이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왜 특정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며, 그들이 여가를 추구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가활동 동기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여가행동의 이해 뿐 아니라 나아가서 여가선택과 수요 유형의 예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부의 경우 핵가족화와 더불어 자녀수가

점차 적어지는데다가 가사노동이 기계화, 산업화됨으로 인한 가족의 생활양식 변화로 자유시간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본질적으로 구속받지 않는 자유자재의 노동으로서 반여가적(半餘暇的)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므로 시장노동과는 달리 노동과 여가의 시간적 범주화가 불명확하게 된다. 따라서 주부의 자유시간 연구에 있어서는 주부가 여가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가 즉,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기수준은 주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와 함께 달라진 여성들의 성역할 성격특성이 가사노동과 여가에 대한 가치를 변화시켜 여가활동에 대한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여가활동 전반에 걸친 동기차원을 밝히는 한편, 주부 개개인들의 특성이 각 여가활동 동기차원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보는 것과 동시에 여가활동 동기에 따른 주부의 유형별로 여가행동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여가활동 동기에 관한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고 다수의 주부들이 여가욕구 충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여가활동 동기

#### 1) 여가의 개념

여가의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그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정의의 방법은 여가를 시간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여가를 시장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정의하는 二分法, 시장노동시간과 무보수 노동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으로 여가를 정의하는 三分法 등이 그 예이다. 이 같은 시간개념으로서의 여가의 정의는 Neulinger(1980)에 의하면 여가의 물질적 정의 혹은 잔여적(residual)정의라 한다.

여가의 두번째 정의 방법으로 활동개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자유시간에 행하는 활동 그 자체로 여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Neulinger(1980)는 이것을 여가의 사회적 정의라 하였다.

첫번째와 두번째 정의 방법을 Unger와 Kernan(1983)은 관찰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여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여가의 객관적 정의라 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정의 방법들은 때에 따라서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시간이나 활동 참여가 증가한다고 해서 개인적 의미에서 여가가 커지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활동들 중에는 일-여가 중 어느 하나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는 半餘暇的 활동(semi-leisure activity)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의로는 여가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여가에는 시간과 활동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는 발상에서 여가에 대한 주관적 정의 즉 여가를 정신적 상태, 혹은 심리적 경험으로 파악하는 개념이 생겨났다. Neulinger(1974)에 의하면 “여가를 보낸다 함은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 수행된 활동에 몰입함을 말하며 기쁨과 만족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한 개인의 존재의 중심내면과 깊게 관련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원형중 1986에서 재인용). Neulinger의 이러한 견해는 여가를

시간 또는 활동으로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가를 노동과 대비되는 것으로 간주하지도 않은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여가 정의의 기본적 차원이 자유의 지각과 내적 동기라는 두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 Iso-Ahola(1979)의 입장도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여가의 주관적 개념 정의는 모든 종류의 활동에 심리적인 여가의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여가와 비여가를 규정하는 심리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여가에 대한 주관적 정의는 여가의 의미가 개인의 심리적 욕구 충족과 그를 통한 만족감의 획득에 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여가활동 동기 연구에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를 주관적·심리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이라는 용어로 시간과 활동의 개념을 각각 표시하기로 한다.

#### 2) 여가활동 동기의 개념 및 차원

인간의 다양한 행동 중에서 여가 행동은 참여를 강요하는 외부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동기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연구대상이었다(Beard & Ragheb 1983). 1969년 미국의 National Academy of Science에 의한 보고서는 “여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가를 충동하는 힘, 둘째, 사람들이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심리적 욕구, 세째, 그에 따라 확립되는 소비형태를 알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여가에 관한 이론을 수립하고 검증하는데에 동기연구가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사람들이 왜 여가를 즐기는가’ 또는 ‘사람들이 여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는 여가에 대한 동기(motivations), 욕구(needs), 이유(reasons), 만족(satisfaction)등의 다양한 개념이 논의되어 왔다. Driver등은 같은 주제를 ‘심리적 적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Peterson은 동기를 여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다(Crandall 1980). 욕구·이유·동기는 여가를 추구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인데 비해, 만족·심리적 산출은 여가를 통해 얻는 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경험적 연구에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다루어졌고, 모두 여가활동 동기의 개념 발달에 도움이 되고 있다.

Crandall(1980)은 학자들간에 중요성을 인정받은 17개의 여가 욕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㉔ 문명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연을 즐기기 위함, ㉕ 일상적 책임감으로부터의 탈출, ㉖ 신체적 단련, ㉗ 창조성, ㉘ 휴식 및 회복, ㉙ 사회적 접촉, ㉚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㉛ 異性과의 접촉, ㉜ 가족접촉, ㉝ 인정 및 지위, ㉞ 사회적 권력, ㉟ 이타주의, ㊱ 자극 추구, ㊲ 자아 실현, ㊳ 성취·도전·경쟁, ㊴ 시간 때우기, ㊵ 지적 심미주의 등을 포함한다. 이 17요인들간의 중요도는 체계화되지 않았으며 동기 범주들의 구체성 혹은 일반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17항목을 확장, 압축,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

Beard와 Ragheb(1980)은 여가 만족의 개관적 측정도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가만족의 차원들을 조직화하려는 시도로서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여가만족 척도(LSS; Leisure Satisfaction Scale)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여가 만족이 심리적(psychological), 교육적(educational), 사회적(social), 휴식적(relaxational), 생리적(physiological), 심미적(aesthetic) 차원 등 논리적으로 범주화된 여섯개의 차원이 있음을 밝혔다.

Beard와 Ragheb(1983)의 연구는 ㉔ 지적(intellectual), ㉕ 사회적(social), ㉖ 자극회피(stimulus avoidance), ㉗ 능력-숙달(competency-mastery)요인 등 네개의 하위척도로서 전반적 여가활동에의 참여이유에 대한 보편적 척도를 구성하였다.

Pierce(1980)가 군집분석을 통하여 구성한 만족 차원 척도는 ㉔ 친밀감(intimacy), ㉕ 휴식·회복(relaxation), ㉖ 성취감(achievement), ㉗ 권력(power), ㉘ 시간보내기(time filling), ㉙ 사고(intellection)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여가의 주요 목적은 개인의 만족과 행복 추구에 기여하는 것이며 여가의 중요성이 욕구만족 과정을 돕는데 있다는 점에 연구자들은 동의하고 있다(Beard & Ragheb 1980).

주로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했던 위의 연구들에 비해, 주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강나미·김은실(1988)의 연구에서는 주부들이 여가활동을 갖는 이유로, '자신의 교양과 건강을 위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가족 또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를 꼽고 있으며, 지영숙(1975)의 연구에서도 부인의 여가 이유가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함'에 이어 두번째로 '가족 단란'을 드는 등, 가족지향적인 동기 차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관련 변수의 고찰

### 1)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와 여가활동 동기

인구학적 특성 중 직업의 종류에 따른 여가 동기의 차이에 관해서는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표해왔다. 직업과 동기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로 보상설과 유사성 가설이 있는데, 보상 가설(compensatory hypothesis)이란 개인은 직업적 책무에서 획득될 수 없는 만족감을 여가에서 추구한다는 것이며, 유사성가설(similarity hypothesis)이란 개인은 라이프스타일의 일관성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에게 익숙한 일과가 계속되는 여가활동 내지 동기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Pierce(1980), 조기정(1985), 이영길(1984)의 연구는 유사성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에 대한 의식과 동기를 조사한 김규호(1986)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를 창조적인 삶을 위한 것으로, 그리고 자기 개발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또, Unger와 Kernan(1983)의 연구 결과에서는 연령과 상황이 상호작용하여 여가경험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다. 지영숙(1975)은 20대 주부는 여가를 통한 자아를 강조하고자 하는 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고, 가정의 소득액이 적을 경우는 공동사회적 대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여가를 즐기는데 비해, 소득액이 많아질수록 개인주의적 생활행동을 위해 여가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가족 레크리에이션에 관해 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의숙(1978)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려는 이유로서 상층에 있어서는 '기분전환'(39.1%)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하층은 '자녀교육'(51.7%)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 2) 성역할 성격특성과 여가활동 동기

1970년대초에 양성성(androgyny) 개념이 도입된 이후 성역할이 연구의 중요 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 개념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상호독립적 특성으로서 한 개인 내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인데 (Constantinople 1973; Hirschman 1984에서 재인용) 양성적 성격특성은 융통적이고 심리적으로 건강하며 적응력 있는 인간이 되도록 한다고 주장되어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논의되어 왔다.

Gentry와 Doering(1979)은 양성적인 사람이 다른 성역할 성격특성을 갖는 사람보다 더 많은 여가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성역할 성격특성보다 생리적 성별이 더 여가를 잘 설명함을 발견하였다.

Hirschman(1984)의 연구에서는 Gentry와 Doering(1979)과는 달리 성역할 성격특성이 생물학적 성보다 여가 동기의 변량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성은 몰입적 경험과 正의 관련을 갖는 즐거움, 현실도피, 몰입 등의 동기와 관련되며, 남성성은 경쟁, 완성, 긴장 등의 동기와 관련되어 여가활동 중의 몰입적 경험을 덜 하는 것과 관련있다고 한다. 그 밖에 모험과 흥분의 동기는 심리적 양성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양성적인 사람이 여가행동에서 더 많고 다양한 동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3. 여가활동 동기와 여가 행동

동기라는 개념은 본래 행동의 원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행동을 유발하고 방향을 부여하며 행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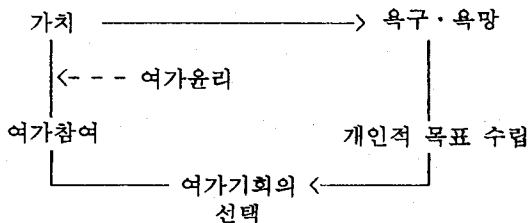


그림 1. 여가활동 동기와 여가행동과의 관계.

강도나 지속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김태갑(1982)은 여가활동 동기가 여가활동 참여행동까지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 4. 여가활동 동기의 유형화

인간의 동기는 활동(activity), 사람(people), 시간(time)에 따라 복합성을 띠 뿐 아니라 공통성 내지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가활동 동기의 연구를 통해 활동들을 설계, 대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Crandall 1980). Brown은 사람들을 각자의 욕구 윤곽(need profile)에 따라 군집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많은 수의 욕구들을 적절한 수로 묶을 수 있다고하여 여가활동 동기 분야가 사람들의 유사성에 기초한 건설적 연구를 포함함을 암시하였다(Crandall 1980). 즉, 여가활동 동기에 따라 사람들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으며, 각 유형들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국민 여가생활에 대한 공공정책을 확일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수립할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도시 주부의 여가활동 동기는 어떠한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별 동기의 전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여가활동 동기는 응답자의 특성 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1. 여가활동 동기는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2. 여가활동 동기는 응답자의 성역할 성격특성 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참여는 여가활동 동기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여가활동 동기의 차원에 따라 연구대상은 어떻게 유형화되며 유형화된 집단들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성역할 성격특성 그리고 여가행동 특성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1) 척도의 구성

#### (1) 여가활동 동기 척도

여가활동 동기 측정을 위한 문항은 Crandall(1980), Tinsley와 Kass(1979), Beard와 Ragheb(1983) 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 중에서 우리나라 주부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추출하고 연구자가 몇 문항을 추가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된 2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④ 정말 그렇다'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작성하였다.

#### (2) 여가활동 참여 척도

여가활동 참여도의 측정은 예비조사를 근거로 선정된 15문항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의 빈도를 문항에 따라 5점 척도와 6점 척도로 측정된 후 표준화된 척도가 필요한 분석과정에서는 6점 척도로 변환한 것이다.

#### (3) 성역할 성격특성 척도

김영희(1988)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별도가 높다고 판단된 남성성 측정문항과 여성성 측정문항을 각각 9개씩 선정하여 각 문항별로 '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⑤ 정말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 뒤, 18문항을 요인분석하여 varimax방법에 의해 직교회전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성역할 성격특성 유형의 분류 방식은 중앙값 반분법(median-split method)을 사용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의 모두 중앙값보다 높은 경우에는 양성적 집단에, 남성성은 중앙값보다 높고 여성성은 중앙값보다 낮으면 남성적 집단에, 남성성은 중앙값보다 낮고 여성성은 중앙값보다 높으면 여성적 집단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중앙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미분화 집단에 속하게 하였다.

#### (4) 측정도구의 신뢰도

크론바하의 알파(Cronbach's  $\alpha$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알아본결과, 여가활동 동기

측정문항은 예비조사시 각 차원별로 알파계수가 0.6 이상으로 만족할 만하였는데 본조사시에 다시 요인분석한 결과에 따라 각 차원별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성역할 성격특성 척도의 신뢰도 알파계수는 남성성 척도의 경우 .79이고 여성성 척도의 경우 .58이었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

본조사에 앞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하의 취업/비취업 주부 59명을 대상으로 1990년 8월 15일에서 8월 22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성역할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30문항 중 판별력이 높은 18문항이 선정되었고 여가활동참여 측정 문항이 15문항으로 간소화되었으며 여가활동 동기 측정 문항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수정된 질문지로 1990년 9월 8일에서 9월 20일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하의 취업/비취업 주부로서 연구 자료는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면접 또는 질문지에 본인이 직접 기재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총 70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는 589부였는데(회수율; 84.14%) 이 중에서 내용기재가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574부가 최종적인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 3) 자료의 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분포, 평균, 백분율을,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검증을 하였다. 여가활동 동기의 차원을 추출하는 데와 여가활동의 영역을 분류하는 데도 요인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각 차원의 내적 일관성을 보기 위해서는 신뢰도 계수 검증을 하였다.

여가활동 동기의 차원과 응답자의 특성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일원분산분석 및 중다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행하였고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보기 위해 중분류분석(MCA)을 이용하였다. 여가활동 동기와 여가활동 참여간의 관계를 보는데에는 상관계수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군집분석(Clus-

ster Analysis)을 행하였고 분류된 집단이 여가 동기에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점수를 가지고 중다범위검증을 하였다. 각유형 집단별 특성을 보는데는 빈도 분포, 평균 및 백분율 및 X<sup>2</sup>분석, 그리고 일원분산분석 및 중다범위검증을 이용하였다.

통계는 서울대학교 전자계산소의 SPSS-X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여가활동 동기의 차원

여가활동 동기를 묻는 21문항을 요인분석하여 5개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

표 1. 여가활동 동기문항의 요인부하량과 요인별 문항 및 명칭

문 항	요인 1 (자기발전 적 동기)	요인 2 (휴식적 동기)	요인 3 (사회적 동기)	요인 4 (가족적 동기)	요인 5 (모방적 동기)
• 자신의 발전과 성숙을 위하여	.75	.19	.02	.01	-.09
•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67	-.06	.19	.22	.08
• 다른 사람 및 사회 전체에 대한					
•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65	-.14	.11	.36	.07
• 자신감을 갖게 해 주므로	.61	.04	.11	.36	.11
• 교양을 쌓기 위하여	.60	-.02	.25	.32	-.06
•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기 위하여	.59	.24	.24	-.18	-.13
• 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52	.21	.19	-.04	-.23
• 생활에 자극을 주기 위하여	.46	.42	.17	-.24	.21
• 피로 회복과 휴식을 위하여	-.08	.76	.04	.27	.01
• 일상적인 의무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	.15	.67	.16	-.04	.04
•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11	.65	.25	.16	-.05
•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22	.63	.16	.21	.24
• 신체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31	.53	-.20	.22	-.02
• 여가활동을 통해 나의 능력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24	.24	.73	-.06	.09
•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위하여	.08	.12	.68	-.25	.11
•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15	.15	.64	.18	.24
• 나의 재능과 솜씨를 발휘하기 위해	.37	.09	.55	.03	-.16
•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	.08	.16	.22	.69	-.02
•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므 로	.31	.08	.04	.69	.06
• 꼭 내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06	.11	.07	.01	.84
• 다른 사람들이 권하기 때문에	-.05	.02	.13	.04	.83
고유치	5.17	2.25	1.75	1.35	1.17
전체변량(%)	24.6	10.7	8.3	6.4	5.6
누적변량(%)	24.6	35.3	43.6	50.0	55.7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고유치(Eigenvalue)가 1이상인 점에서 결정하였다. 이 5개의 요인들을 Varimax방법에 의해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을 시켜 각 문항별로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에 포함시켰다.

표 1을 살펴보면 요인 1은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 자기를 발전시키려는 동기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기발전적 동기 요인이라 하겠다. 요인 2는 휴식이나 건강증진을 통한 정신적·신체적 에너지 재충전 및 긴장해소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휴식적 동기 요인이라 하겠다. 요인 3은 타인과의 친교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동기에 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회적 동기 요인이라 하겠다. 요인 4는 가족의 단란에 기여하려는 동기에 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가족적 동기 요인이라 하겠다. 요인 5는 내재적인 욕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을 의식하여 추종하려는 동기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된 것이므로 모방적 동기 요인이라 하겠다.

각 요인의 전체변량 중의 백분율을 살펴보면 자기발전적 동기 요인이 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의 전체 변량 중 24.6%를 설명하고 있고 휴식적 동기 요인이 10.7%를, 나머지 세 요인은 각각 10%미만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다섯 요인들의 요인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의 알파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결과 모든 요인이 알파계수 0.6이상으로 만족할 만하였다.

여가활동 동기 차원들의 일반적 수준을 비교해 보기 위해 요인별 요인점수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표 2. 요인점수를 문항수로 나눈 수치를 기준으로 각 동기차원들의 평균적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표 2. 여가활동 동기 차원별 요인 점수 평균

요 인	평균	표준편차	요인점수/문항수
요인 1 : 자기발전적 동기	23.54	4.37	2.94
요인 2 : 휴식적 동기	12.70	3.22	2.54
요인 3 : 사회적 동기	9.64	2.60	2.41
요인 4 : 가족적 동기	5.66	1.43	2.83
요인 5 : 모방적 동기	3.09	1.22	1.55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그러한 동기가 강함을 의미한다.

도시주부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에 참여하려는 데에는 자기발전적 동기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이 가족적 동기, 휴식적 동기, 사회적 동기의 순이다. 모방적 동기는 주로 1점('그렇지 않다')과 2점('대체로 그렇지 않다') 사이에 많은 응답을 보여, 도시주부가 여가활동을 하는데에 모방적인 동기는 비교적 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여가활동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1) 자기발전적 동기예의 영향요인

여가활동예의 자기발전적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및 중다범위검증을 행한 결과 유의한 관련을 보인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수준, 성역할 성격 특성 등의 변수들을 가지고 중분류분석을 행하였다. Beta값을 기준으로 타 변수 통해 후의 각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부의 연령( $\beta=0.21$ )과 성역할 성격특성( $\beta=0.20$ )의 설명력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교육수준( $\beta=0.13$ ), 가계소득수준( $\beta=0.12$ )이 비슷한 정도의 설명력을 보였다.

연령은 자기발전적 동기와 유의하게 관련되어 다른 집단들에 비해 34세 이하인 주부들이 이러한 동기를 많이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자기발전적 동기가 높아져,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주부가 이 동기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월평균 가계소득이 80만원 이하인 집단이 가장 낮은 자기발전적 동기수준을, 301만원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은 자기발전적 동기수준을 보였다. 자기발전적 동기에서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는 정도는 양성적인 집단이 여성적이거나 미분



화된 집단에 비해 높고, 또 남성적인 집단이 미분화 집단에 비해 높다.

그 밖에 주부의 취업여부, 직업, 가족형태, 가족원 수 등은 자기발전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휴식적 동기에서의 영향요인

휴식적 동기에 영향미치는 요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변수인 연령, 교육수준, 성역할 성격특성 등을 중분류분석에 포함시켰다. Beta값을 기준으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의 각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연령의 설명력이 가장 크고( $\beta=0.13$ ) 그 다음으로 성역할 성격특성( $\beta=0.11$ ), 교육수준( $\beta=0.08$ )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4세 이하 집단의 휴식적 동기 수준이 가장 높고 35세에서 49세까지는 이런 동기가 비교적 낮다가 50세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휴식적 동기가 높아져,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이 다른 주부들에 비해 여가를 통해 휴식의 욕구를 만족시키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 성역할 성격특성별로 보면 양성적 집단의 휴식적 동기가 성역할 미분화집단에 비해 높다.

그밖에 주부의 취업여부, 직업, 가계소득수준, 가족형태, 가족원 수, 막내자녀의 연령 등은 휴식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사회적 동기에서의 영향요인

사회적 동기에 영향미치는 요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명된 직업, 가족원 수, 막내 자녀의 연령, 성역할 성격특성 등 네 변수를 중분류분석에 포함시켰다.

Beta 값을 기준으로 타 변수 통제 후의 각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성역할 성격특성이 가장 설명력이 크고( $\beta=0.15$ ) 가족원 수의 설명력이 그 다음으로 크다( $\beta=0.14$ ). 그 다음으로는 막내자녀의 연령( $\beta=0.12$ ), 직업( $\beta=0.09$ )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무직이나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주부들은 타

직종에 종사하는 주부들이나 취업하지 않은 주부들에 비해 사회적 동기의 점수가 높다. 가족원 수에 따른 차이는 곡선적 관계를 보여, 가족원 수가 2인인 경우와 7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은 점수를, 3인에서 6인의 가족원을 가진 주부들에게 있어서 여가에의 사회적 동기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자녀 출산 이전에는 주부들이 사회적인 동기에서 여가를 추구하는 경향이 크다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이러한 동기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여성적, 남성적, 미분화 집단들에 비해 양성적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다. 따라서 주부의 양성적인 성격특성은 여가활동에의 사회적 동기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가계소득수준, 가족형태 등은 주부의 사회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가족적 동기에서의 영향요인

가족적 동기에 영향미치는 요인들의 독립적 효과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 앞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의도가 입증된 가족원 수, 막내자녀의 연령, 성역할 성격 특성 등의 세 변수를 중분류분석에 포함시켰다<sup>1)</sup>. Beta값을 기준으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 통제 후의 각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비교해본 결과 성역할 성격특성의 설명력이 가장 크고( $\beta=0.18$ ), 가족원 수와 막내자녀의 연령( $\beta=0.12$ )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른 효과를 보면, 6세에서 11세, 그리고 12세에서 17세의 학령기 자녀를 둔 주부는 여가활동에 있어서 가족적 동기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없거나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자녀가 모두 18세 이상인 가정의 주부에게는 여가를 가족적 동기에서 찾는 경향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 양육에 따르는 가족의 책임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원

1) 주부의 연령과 막내자녀의 연령간에 상관관계가 높아 중분류분석에 함께 포함시킬 경우 설명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두 변수를 함께 포함시켰을 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부의 연령을 제외하고 다시 중분류분석을 행하였다.

표 3. 여가활동 동기에 영향미치는 요인들의 중분류분석

종속변수	변수	범주	(빈도)	통제 전 Eta	통제 후 Beta	종속변수	변수	범주	(빈도)	통제 전 Eta	통제 후 Beta
자기발전적 동기	연령	34세이하	(129)	1.56	1.59	휴식적 동기	연령	34세이하	(131)	0.74	0.67
		** 35~39세	(147)	-0.50	-0.64			35~39세	(149)	-0.21	-0.22
		40~44세	(149)	-0.51	-0.42			40~44세	(149)	-0.45	-0.39
		45~49세	( 76)	-0.57	-0.57			45~49세	( 77)	-0.21	-0.18
		50세이상	( 54)	-0.15	-0.09			50세이상	( 55)	0.33	0.32
				0.20	0.21					0.14	0.1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92)	-1.93	-1.2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93)	-0.54	-0.37
		** 고등학교	(248)	0.10	0.20			고등학교	(252)	-0.17	-0.13
		대학교 이상	(215)	0.72	0.32			대학교 이상	(216)	0.42	-0.31
				0.21	0.13					0.11	0.08
가계소득 수준	80만원 이하	(104)	-1.29	-0.89	성역할 성격특성	양성적	(190)	0.41	0.44		
	81~120만원	(130)	0.38	0.28		남성적	(117)	0.07	-0.01		
	121~200만원	(121)	-0.13	-0.24		여성적	(117)	-0.03	-0.10		
	201~300만원	( 99)	-0.20	0.16		미분화	(137)	-0.61	-0.52		
	301만원 이상	(101)	1.19	0.68					0.12	0.11	
			0.18	0.12							
성역할 성격특성	양성적	(187)	1.15	1.09	가족적 동기	가족원 수 2인	( 44)	-0.31	-0.17		
	** 남성적	(116)	0.24	1.16		3인	( 71)	-0.46	-0.38		
	*** 여성적	(116)	-0.80	-0.89		4인	(194)	-0.01	-0.01		
	미분화	(136)	-1.11	-0.89		5~6인	(222)	0.17	0.15		
			0.22	0.20				0.15	0.12		
직업	주부	(367)	0.02	0.06	막내자녀의 연령	자녀없음	( 40)	-0.32	-0.18		
	전문/경영관리직	( 48)	-0.65	-0.67		0~ 5세	( 73)	-0.26	-0.12		
	사무/전문기술직	( 59)	0.78	0.30		6~11세	(208)	0.21	0.17		
	생산판매서비스직	( 83)	-0.26	-0.07		12~17세	(188)	0.05	0.00		
			0.13	0.09				0.15	0.12		
가족원수	2인	( 43)	1.21	-0.64	성역할 성격특성	양성적	(190)	0.33	0.33		
	* 3인	( 70)	-0.59	-0.60		남성적	(117)	-0.02	-0.01		
	4인	(194)	0.18	0.22		*** 여성적	(117)	-0.17	-0.17		
	5~6인	(221)	-0.28	-0.21		미분화	(137)	-0.30	-0.31		
	7인이상	( 29)	0.53	0.66					0.18	0.18	
			0.18	0.14							
막내자녀의 연령	자녀없음	( 39)	1.29	0.94	모방적 동기	가계소득 수준	80만원 이하	(104)	0.07	0.05	
	0~ 5세	( 72)	0.02	0.17		81~120만원	(130)	0.10	0.07		
	6~11세	(208)	0.00	0.06		* 121~200만원	(121)	0.19	0.19		
	12~17세	(187)	-0.24	-0.30		201~300만원	(100)	-0.07	-0.05		
	18세 이상	( 51)	-0.13	-0.11		301만원 이상	(102)	-0.34	-0.31		
			0.14	0.12				0.15	0.14		
성역할 성격특성	양성적	(187)	0.53	0.51	성역할 성격특성	양성적	(188)	-0.06	-0.02		
	** 남성적	(116)	-0.42	0.43		남성적	(116)	-0.22	-0.21		
	*** 여성적	(117)	-0.08	-0.09		여성적	(117)	0.25	0.22		
	미분화	(137)	-0.30	-0.27		미분화	(136)	0.05	0.02		
			0.15	0.15				0.13	0.11		

\*p<.05 \*\*p<.01 \*\*\*p<.001

수는 전반적으로 가족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가활동에의 가족적 동기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가족적 동기에 있어서도 양성적 집단만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다.

그밖에 주부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직업, 가계소득수준, 가족형태 등은 주부의 가족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모방적 동기예의 영향요인

모방적 동기에 영향미치는 요인들의 독립적 효과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입증된 소득과 성역할 성격특성 변수를 중분류분석에 포함시켰다. Beta값을 기준으로 볼 때 모방적 동기를 설명하는 데는 가계소득수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그 다음이 성역할 성격특성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월평균 가계 총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 즉, 모방적 여가동기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그다지 나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모방적 동기로 여가활동을 하게 되는 정도는 성역할 성격 특성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성적인 집단이 남성적, 양성적 집단에 비해 이 동기를 더 많이 갖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여성성의 의존성, 수동성, 타인감정에의 민감성 등이 이 동기와 正的으로 관련되어 있고 남성성의 독립성 등이 모방적 동기와 負的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밖에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직업, 가족형태, 가족원 수,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모방적 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가활동 동기와 여가활동 참여

여가활동의 영역을 분류하기 위해 15가지의 여가활동에의 참여 빈도를 묻는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5개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해 추출

표 4. 여가활동 영역의 요인명칭 및 문항별 요인 부하량

문 항	요인 1 (자기개발 활동)	요인 2 (가족/가정 관련활동)	요인 3 (종교· 사회활동)	요인 4 (사교 활동)	요인 5 (소일 활동)
취미활동, 자학자습	.73	.03	.27	.03	.07
음학회, 전람회, 연극 등					
문화활동	.72	.15	.12	.08	-.17
독서, 음악감상	.66	.14	.07	-.02	.39
운동	.57	.09	.03	.17	.01
취미강습, 교양강좌	.52	.11	.47	.22	.07
야외나들이, 여행	.47	.35	-.27	.32	-.09
가족과 대화, 자녀와 놀기	.14	.78	.08	-.11	.10
음식만들기, 집안가꾸기	.07	.75	.20	.04	.05
시장, 백화점나들이, 가족외식	.33	.56	-.16	.39	-.06
종교활동	.04	.08	.76	.02	.02
사회봉사, 사회단체활동 참여	.27	.10	.69	.20	-.10
계, 친목회, 동창회 등 모임참석	.150	-.14	.17	.76	-.02
친구, 친지, 이웃 만나기	.21	.32	.20	.58	.23
휴식, 낮잠	.11	.08	-.01	-0.08	.78
TV, 라디오	-.13	.01	-.04	.43	.64
고유치	3.93	1.43	1.29	1.12	1.03
전체변량(%)	26. 2	9. 5	8. 6	7. 5	6. 8
누적변량(%)	26. 2	35. 7	44. 3	51. 8	58. 5

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고유치가 1 이상인 점에서 결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요인들을 Varimax방법으로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시켜, 각 문항마다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에 포함시켰다(표 4).

요인별 고유치와 전체변량 중의 백분율을 살펴보면 자기개발 활동 요인의 값(전체변량: 26.2%)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가족·가정관련 활동 요인, 종교·사회 활동 요인, 사교 활동 요인, 소일 활동 요인의 값들은 모두 10%미만으로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으 다섯 요인들의 누적변량의 백분율을 보면 58.5%로, 이 요인들은 주부가 참여하는 여가활동 영역을 58.5%정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류된 여가활동 영역에서의 참여와 각 동기차원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계수 분석을 행하였다(표 5).

즉, 여가활동 참여와의 상관관계를 각 동기차원 별로 보면, 여가활동에의 자기발전적 동기가 클수록 자기개발활동, 가족·가정관리활동, 사교활동에의 참여가 증가한다. 휴식적 동기는 자기개발활동, 가족·가정관리활동 참여와만 유의한 正의 상관을

보인다. 여가활동에의 사회적 동기는 자기개발활동, 가족·가정관련활동, 사교활동의 참여와 正의 관련이 있고, 가족적 동기는 가족·가정관련활동과 종교·사회활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모방적 동기는 사교활동 및 소일활동에의 참여와 유의한 正의 상관을 보인다.

#### 4. 여가활동 동기의 차원에 따른 주부의 유형화

##### 1) 유형화시킬 집단의 수 결정

우선, 유형화시킬 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예측했던 집단의 수를 중심으로 3개, 4개, 5개 집단들의 빈도분포를 살펴보고 각 빈도분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4개 집단을 선정하였다. 각 집단수별 빈도분포를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이렇게 선정된 4개 집단이 여가활동 동기에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사용하여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한 결과 여가활동 동기의 5개 차원에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났다. 이는 4개 집단이 여가활동 동기 차원에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5. 여가활동 동기차원과 여가활동 영역별 참여의 상관관계

	자기개발 활동	가족·가정 관련활동	종교· 사회활동	사교 활동	소일 활동
자기발전적 동기	.29***	.22***	.06	.10**	.01
휴식적 동기	.13**	.08*	.03	.04	.02
사회적 동기	.17***	.19***	.06	.13**	.04
가족적 동기	.06	.10**	.10*	-.11	-.07
모방적 동기	-.05	.01	-.02	.12**	.12**
평균	19.48	13.41	5.21	7.28	7.28
표준편차	6.35	2.68	2.68	2.01	2.38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집단의 수와 빈도

집단수=3	빈도	집단수=4	빈도	집단수=5	빈도
집단 1	81	집단 1	22	집단 1	59
집단 2	49	집단 2	214	집단 2	44
집단 3	440	집단 3	218	집단 3	19
		집단 4	116	집단 4	365
				집단 5	83

2) 여가활동 동기 유형별 특성 및 명칭

동기에 따라 유형화된 4개 집단들에 명칭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집단별로 여가활동 차원의 표준화된 요인점수와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를 살펴보았다(표 7). 이때 던컨테스트 결과는 집단들의 요인점수에 따른 순위로 나타내었다.

집단 1은 자기발전적 동기, 휴식적 동기, 사회적 동기, 가족적 동기, 모방적 동기 등 모든 동기가 가장 낮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표준화된 요인점수도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는 데에 어떠한 동기도 그다지 보이지 않으므로 '여가 무관심형'이라고 명칭을 부여하였다.

집단 2는 집단간 순위를 보면 자기발전적 동기와 휴식적 동기가 집단 4 보다는 낮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동기는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그런데 표준화된 요인점수가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집단은 여가에 대한 동기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그것이 매우 소극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은 '소극적 여가 추구형'이라고 명칭을 부여하였다.

집단 3은 집단간 순위를 볼 때 모방적 동기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준화된 요인점수를 보면 가족적 동기와 모방적 동기는 양의 값을, 나머지 동기는 모두 음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 집단은 자기 자신의 발전이나 휴식을

통한 재충전보다는 가족이나 타인 지향적인 동기, 그리고 모방적 동기가 강하므로 '수동적 여가추구형'이라고 명칭을 부여하였다.

집단 4는 집단간 순위를 볼 때, 모방적 동기를 제외한 모든 동기 차원에 걸쳐 다른 집단들보다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모방적 동기는 집단 3에 이어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화된 요인점수도 모두 양의 값을 가지므로 이 집단은 '적극적 여가추구형'이라 할 수 있겠다.

3) 여가활동 동기 유형별 특성

각 집단들의 여가활동 동기 특성 및 인구사회적 특성, 성역할 성격특성, 여가행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여가무관심형(구성비 : 3.9%)

여가무관심형은 여가활동에 대한 동기가 매우 낮아 자기발전이나 휴식을 위하여 여가활동을 하려는 욕구도 없고, 사교를 위해서나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여가활동을 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영향받지도 않는다.

연령은 비교적 많은 편이고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이 많으며(40.9%) 직업을 가진 주부의 경우 주로 생산직이나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87.5%). 가계소득수준은 4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14.3%). 대다수가(90.9) 막내자녀의 연령으로 볼 때 학령기에 있으며 남편이 고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자인 경우가 많다(63.6%).

표 7. 집단간 표준화된 여가활동 동기 점수의 순위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자기발전적 동기	-2.50	-0.04	-0.24	0.99
집단간 순위	4	2	3	1
휴식적 동기	-0.57	-0.10	-0.36	0.97
집단간 순위	3	2	3	1
사회적 동기	-1.73	-0.28	-0.15	1.12
집단간 순위	4	2	2	1
가족적 동기	-0.71	-0.64	0.21	0.91
집단간 순위	3	3	2	1
모방적 동기	-0.71	-0.64	0.68	0.04
집단간 순위	3	3	1	2

남편의 직업은 주로 판매서비스직 또는 생산직이다(52.4%). 이 유형의 주부들은 양성적 성격이 적은 편이고(23.8%) 성역할이 미분화된 성격특성을 보이는 비율이 높다(33.3%).

이들은 종교·사회활동이나 TV보기, 라디오 듣기, 휴식, 낮잠 등의 소일활동 이외의 다른 여가 활동에는 저조한 참여를 보인다. 여가시간의 양도 다른 유형의 주부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며 여가 관련지출도 적게 하여 한달 평균 1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다(45.5%).

**(2) 소극적 여가추구형(구성비 : 37.5%)**

소극적 여가추구형은 여가에 대한 동기가 전반적으로 약하지만 여가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을 얻어 자신감을 가지려는 욕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통한 회복에의 동기도 다소 있다. 그러나 여가활동을 통해 가족에게 봉사하고자 한다거나 타인의 영향을 받아 여가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은 적다.

이 유형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연령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고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층이 많으며(43.0%) 취업주부인 경우 주로 전문기술직(22.1%)에 종사하는 경우가 다른 집단보다 많다. 가계소득 수준이 월평균 2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많고(39.4%) 막내자녀가 18세 이상인 생활주기의 후기단계에 있는 주부가 많다(13.6%). 남편의 교육수준도 대졸이상이 65.3%로 높은 편이고 남편이 경영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45.6%).

이 유형의 주부들은 대부분의 여가활동에 중간정도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종교·사회활동은 적게 하고 주로 모임참석이나 친지만나기, TV보기, 휴식 등에 치우치는 편이다. 이들은 여가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많으며(일주일 평균 26시간 22분) 37.4%가 월평균 5~10만원을 여가관련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3) 수동적 여가추구형(구성비 : 38.2%)**

수동적 여가추구형은 여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거나 피로 회복을 도모하려는 동기보다는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가족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집단이다. 또한 이들은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나 타인의 영향을 받아 여가활동을 하도록 동기화된다.

35~39세 연령층(28.9%)이 가장 많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50세 이상의 주부가 많다(12.8%).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학력을 가진 주부가 다수이고(59.2%) 취업주부의 경우는 전문직이나 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나(29.4%) 생산직 종사자도 22.4%나 된다. 가계소득이 월평균 80~200만원 정도의 중간층이 48.2%를 차지하고, 40~80만원선인 경우도 19.4%로 다른 집단보다 높다. 남편의 교육수준도 평균정도이며 남편 직업의 분포도 비교적 고르다. 성역할 성격 특성상 여성적인 사람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다(24.8%).

이들도 소극적 여가추구형처럼 대부분의 여가활동에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종교·사회활동은 적게 하고 주로 모임참석이나 친지만나기, 소일활동 등이 그들의 여가활동의 대부분이다. 여가시간은 비교적 많은 편이며(주당 약 24시간 43분), 많은 수가 한달에 1~4만원을 여가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나(33.6%) 11만원 이상을 여가비용으로 지출하는 사람의 비율도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다(18.4%).

**(4) 적극적 여가추구형(구성비 : 20.4%)**

적극적 여가추구형은 여가를 통한 경험과 지식을 확대하고 피로를 회복하려하며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돈독히 하고 가족의 단란을 꾀하는 등 여가활동 동기가 전반적으로 높은 집단이다.

이들은 34세 이하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28.5%) 92.2%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취업한 경우는 전문기술직(19.4%)과 사무직(25.0%)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생산직은 매우 적다.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계의 비율이 39.7%로 높고, 막내자녀가 국민학교에 다니는 주부가 44.0%로 가장 많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72.4%로서 고학력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남편의 직업은 경영관리직(38.3%), 전문직(13.0%), 전문기술직(12.2

%)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다. 이 유형의 주부들은 성역할 성격 특성이 양성적인 경우가 많다(50.9%).

이 집단은 모든 여가활동영역에서 가장 활발한 참여를 보이고 있으며 주당 여가시간은 약 24시간 1분으로 중간 정도이다. 여가관련지출은 월평균 5~10만원인 경우가 40.0%로 가장 많다.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에는 자기발전적 동기, 휴식적 동기, 사회적동기, 가족적 동기, 가족적 동기, 모방적 동기 등의 차원이 있으며, 이중 자기발전적 동기가 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의 전체 변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도시주부에게 있어서는 자기발전적 동기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의 가족적 동기, 휴식적 동기, 사회적 동기의 순이다.

둘째, 인구사회적 특성 중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수준, 막내자녀의 연령, 직업, 가족원 수 등에 따라 주부의 여가활동 동기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주부의 성역할 성격특성은 여가활동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동기별로 보면, 자기발전적 동기에는 연령과 성역할 성격특성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교육수준의 영향력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휴식적 동기는 인구사회적 특성, 성역할 특성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사회적 동기에는 성역할 성격특성과 가족원 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적 동기는 성역할 성격특성에 의해, 모방적 동기는 가계소득수준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주부의 여가활동 동기는 여가활동에의 참여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5개의 여가활동 동기차원의 성향 정도에 따라 여가무관심형, 소극적 여가추구형, 수동적 여가추구형, 적극적 여가추구형 등으로 분류되었

는데 각 집단은 인구사회적 특성, 성역할 성격특성이 각기 달랐고 여가행동 또한 차이를 보였다.

### 2. 결론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도시주부들의 여가활동 동기에는 가족적 동기 차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주부에게 있어서 여가가 가족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못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성역할 성격특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 선행연구(Hirschman 1984)의 결과와는 달리 모방적 동기를 제외한 모든 동기차원이 양성성과 관련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세째, 가족생활주기가 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반면, 주부의 취업여부나 직업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주부가, 가사의 요구가 큰 시기에는 여가에서조차 가족중심적인 동기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사성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네째, 여가무관심형으로 분류된 집단은 연령이 많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도 낮았다. 즉, 산업화와 풍요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된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가의 가치가 아직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소극적 여가추구형과 수동적 여가추구형에 비해 적극적 여가추구형의 여가시간이 오히려 더 적게 나타난 것은 여가활동 동기와 여가시간과의 관계가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여가시간을 연구하는 데 있어 단순히 양적인 측정 뿐 아니라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3. 제언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가무관심형의 경우는 여가를 향유할 만한

물질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나 무상으로 여가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줄 필요가 있으며 여가생활 자체에 대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소극적 여가추구형은 구매력이 크고 여가 시간도 많기 때문에 여가산업의 표적집단이 되기 쉬우며, 수동적 여가추구형의 경우는 타인을 의식하는 과소비내지 과시적 소비 집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건전하고 창조적인 여가윤리를 확립하게 하기 위한 여가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1) 강나미·김은실(1988). 도시주부의 여가시간 활동에 관한 연구. 살림본 제 3집, 서울여자대학교.
- 2) 강이주(1988). 선택성 소비지출의 변동을 통한 소비패턴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4), 113-127.
- 3) 김규호(1981). 도시민의 여가의식 및 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숙이·문숙재(1986). 도시주부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
- 5) 김영희(1988). 한국형 성역할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개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27 153-182.
- 6) 김의숙(1978). 가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조사 연구-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3, 49-68.
- 7) 김진섭(1989). 현대여가론. 서울: 형설출판사.
- 8) 김태갑(1982). 우리 나라 대도시의 여가계획을 위한 생활양식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노영남·김일곤(1990). 한국인의 생활욕구도 및 소비생활 수준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89-104.
- 10) 노영남·정용선(1990). 한국인 생활욕구의 요인 구조 및 관련변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67-87.
- 11) 민경애·윤복자(1985).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실태와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 12) (1981). 서울대 신문연구소. 국민생활시간조사. 서울: 한국방송공사.
- 13) (1983). 서울대 신문연구소. 국민생활시간조사. 서울: 한국방송공사.
- 14) (1985). 서울대 신문연구소. 국민생활시간조사. 서울: 한국방송공사.
- 15) (1987). 서울대 신문연구소. 국민생활시간조사. 서울: 한국방송공사.
- 16) 원형중(1986). 직업유형과 일, 여가 및 그 유사 개념들에 대한 태도 비교.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17)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11-127.
- 18) 이미숙(1987). 성역할개념 분리측정에 관한 연구 (I). *성심여자대학 논문집* 19, 379-403.
- 19) 이연숙(1989). 여가활동의 참여유형과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9(1), 99-118.
- 20) 이영길(1984).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본 일과 여가의 개념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조기정(1985). 직업유형에 따른 일과 여가의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지영숙(1975). 한국 도시주민의 여가생활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21.
- 23) 한경미·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 (1), 69-82.
- 24) Beard, Jacob G. & Mounir G. Ragheb.(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 25) Beard, Jacob G. & Mounir G. Raghb.(1983).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5(3), 219-228.
- 26) Becker, G.S.(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27) Crandall, Rick.(1980). Motivations for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45-54.
- 28) Feldman, Laurence P. & Jacob Hornick.(1981). The Use of Time: An Integrated Conceptual Model. *Jouranal of Consumer Research* 7.
- 29) Firestone, Junita & Beth A. Shelton.(1988). An Estimation of the Effect of Women's Work on Available Leisure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 478-495.
- 30) Gentry, J.W. & Doering M.(1979). Sex Role Ori-



- ntation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 102-111.
- 31) Gronau, Reuben.(1977).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6), 1099-1123.
- 32) Hirschman, Elizabeth C.(1984). Leisure motives and sex role. *Journal of LeisureResearch* 16(3), 209-223.
- 33) Iso-Ahola, S.(1979). Basic dimensions of definitions of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1), 28-39.
- 34) Itoh, S., Otake M. Amano H. Amano H. Mori M. Senuma Y. Ishiro S.& Suzuki T.(1988). Time spent on socio-cultural activities by japanese urban male employees and their Wives-A time use survey conducted in tama new town, tokyo. *Journal of Home Economics Japan* 39(6), 553-561.
- 35) Linder, S.(1970). *The Harried Leisure Class*, New York : Columbian University Press.
- 36) Nickols, Sharon Y. & Mohamed Abdel-Ghany. (1983).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189-198.
- 37) Pierce, Robert C.(1980). Dimensions of jeisure I : satisfac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5-19.
- 38) Ragheb, Mounir G. & Jacob G. Beard.(1982). Measuring leisure sttitud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2), 155-167.
- 39) Rice, A.S. & S.M.(1986). Tucker, *Family Life Management*,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40) Robinson, John P.(1977). *How Americans Use Time*, New York : Praeger Publisher.
- 41) Tinsley, H.E.A. & Kass R.A.(1979). The latent dtructure of the need satisfying properties of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 278-291.
- 42) Unger, Lynette S. & Jorome B. Kernan,(1983). On the meaning of leisure : an investigation of some determinants of the subjective experie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381-391.